

내년 예산안 1조4845억원

익산시, 올 대비 11.5% 늘어난 1527억원 증액 편성 민생안정 · 지역경제 활성화 · 코로나 극복 등 중점

익산시는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내년도 예산안 1조4845억원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23일 시에 따르면 내년 예산안은 올 해 대비 11.5% 1,527억원이 증액된 규모로 일반회계 1조 3,197억원(증 11%), 특별회계 1,648억원(증 12%)이 각각 편성됐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재정지출이 증가하고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코로나19 지속적 대응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최대한 확장재정으로 편성했다.

특히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 등을 위한 주요 사업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하여 분야별 필수적으로 반영해야 할 핵심사업으로 재배분했다.

내년도 편성된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우선 민생경제 안정화와 소상공인 · 중소기업 지원 분야에 ▲익산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312억 ▲영

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11억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이차보전 8억 ▲소상공인 특별보증 지원 2억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 73억 ▲홀로그래프 기술개발사업 39억 등이 편성됐다.

일자리창출 분야는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청년혁신가 지원 18억 ▲지역 주도형 청년일자리 등 29억 ▲다이어움 일자리사업 20억 ▲익산형 뉴딜일자리 6억 ▲대학생 단기인턴 3억 등이다.

다시 찾고 싶은 관광·역사 분야는 ▲세계유산보존 관리 145억 ▲고도지정지구 육성 및 환경개선사업 55억 ▲국가지정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67억 ▲구룡마을 대나무숲정비 20억 ▲통합문화체육관광 이용권 17억 ▲왕궁보석테마 대표관광지 조성 16억 ▲미륵사지지구 관광지 조성 10억 등이 편성됐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분야는 ▲신종감염병증후군 예방관리사업 2억 ▲영세소상공인 대출자금 이차보전 지

원 1억2천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7억 ▲익산형 내일채움공제 지원 9,800만원 등이다.

더불어 시는 복지 분야는 ▲기초연금 지급 1,418억 ▲생계급여 533억 ▲노인일자리 344억 ▲영유아 보육료 328억 ▲가정양육 수당 40억 등이다.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안전 분야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상 105억 ▲전기차 구매지원 110억 ▲수소차 구매지원 45억 ▲재해위험개선지역 정비 199억 ▲공원조성 계획 50억 ▲경화학교 재가설 52억 ▲도시숲 조성사업 34억 등을 편성했다.

안정적 농업생산 지원 분야는 ▲기본형 공익직접 지불제 384억 ▲농업환경보전 지원 100억 ▲유기질비료 지원 24억 ▲발농업 직불제 20억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 및 퇴비 등 51억 등을 편성했다.

살기 좋은 익산 인구정책 사업으로 ▲전일장터금 등 28억 ▲청년주택자금 대출이자 3억 ▲익산형 근로청년수당 10억 ▲청년드림카드 3억 ▲청년창업드림카드 및 인프라 구축지원 5억 ▲한방산업부부 및 임산부 280건강관리비 지원 6억 등을 신규·확대 편성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군산시,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대규모 콘서트 등 인원 제한

도내 전지역이 23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로 격상된다.

23일 군산시에 따르면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로 격상되며 시설에 따른 규제가 변화된다.

모임 행사에서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축제는 기존 500명 미만에서 100인 미만으로 인원제한을 두고 2m의 거리두기를 권고하게 된다.

종교시설은 정규예배 등 좌석 수의 30% 이내로 인원을 제한하고 모임식사 금지, 숙박행사가 금지된다.

유흥시설(클럽, 단란주점, 감성주점 형태의 일반음식점, 헌팅포차의 운영업소)은 기존 시설면적 4㎡당 1명의 인원제한에서 흡추가, 좌석간 이동 금지가 추가된다.

방문판매 홍보관에서는 밤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고 노래방은 시설면적 4㎡당 1명의 인원제한, 음식 섭취 금지

가 포함된다.

결혼식장, 장례식장, 목욕장업, 오락실, 멀티방 실내 체육시설 등은 시설면적 4㎡당 1명의 인원제한이 되고 학원(교습소포함), 직업훈련기관, 미용업도 시설면적 4㎡당 1명의 인원제한 또는 한칸 띄우기를 해야 한다.

영화관 공연장, PC방은 다른 일행간 좌석 띄우기가 실시되고 스포츠 행사는 수용가능인원의 30%만 수용해야 한다. 국공립시설 역시 수용가능인원의 50%로, 경륜, 경정, 경마, 카지노는 20%로 제한된다. 다만 각 시군의 판단에 따라 방역관리 상황 시설 등을 고려해 일부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최근 인근지역과 우리 지역에 코로나19의 발생이 3차 재유행으로 표현될 만큼 엄중하다"면서 "개인위생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고 각종 소모임을 최소화해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군산=한명봉 기자

군산, 하남 85번 접촉 2명 코로나 확진

제주도 모임에서 하남 85번 확진자와 접촉한 2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됐다.

23일 김일준 군산시장은 비대면 브리핑에서 제주도 모임을 다녀온 하남 85번 확진자와 접촉한 군산시민 2명이 코로나 19에 확진됐다고 밝혔다.

코로나19 군산 33번 확진자 A(50)씨는 지난 19일 제주도 모임에서 하남 85번 확진자와 접촉했다. 최초증상은 지난 20일 목에 이물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난 22일 확진자 접촉 통보를 받고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체를 채취하고 23일 새벽 1시 경 양성통보를 받았다.

군산84번 확진자 B(50)씨 역시 지난 19일 제주도 모임에서 하남 85번 확진자와 접촉했다. B씨는 무증상으로 지

난 22일 확진자 접촉 통보를 받고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체를 채취하고 23일 새벽 1시 경 양성통보를 받았다.

시는 이들이 방문한 인근 CCTV를 확인해 소독을 실시하고 접촉자를 파악하고 있으며 추가 방문자나 동선이 발견되는 즉시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접촉자 파악에 총력을 다 할 계획이다.

김일준 군산시장은 "전북 전역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격상되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지만 시민들의 참여와 동참이 필요하다"면서 "개인위생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고 소모임 연발 모임 등을 최소화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군산=한명봉 기자



군산대학교 회계학과가 23일 '2020 회계학과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하고 이한울(3학년) 등 13명의 우수 인재에게 소정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군산대 2020 회계학과 장학금 수여식

군산대학교 회계학과가 23일 '2020 회계학과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하고 이한울(3학년) 등 13명의 우수 인재에게 소정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장학금 수여식에는 군산도시가스 김동수 회장, 고선종 교수, 익산열에너지협동화단지개발 김영철 본부장, 금석해운 노용술 이사, 해상지테크 박혜식 대표이사, 박경원 교수, 양동제 교수가 우수한 학생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학업에 몰입할 수 있도록 기부한 장학금으로 조성됐다.

군산도시가스 김동수 회장이 회계학과 과와 인연을 맺은 후 기부한 장학금과

회계학과 교수 및 동문들이 회계 전문가 양성을 위해 기부한 기금을 합쳐 총 1억5,000여만원의 회계학과 발전기금이 조성되어 있고, 매년 우수 인재를 위한 장학금 수여식이 이루어지고 있다.

장학금은 국가전문자격시험(세무사 및 관세사) 성적 우수자 및 1차 합격자,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여 수여되고 있다.

올해에는 세무사 1차 합격자인 이한울 학생과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 12명을 선발했다.

/군산=남현봉 기자

익산시의회 재정정책연구회 용역보고회 개최

익산시의회(의장 유재구)는 최근 모현도서관에서 재정정책연구회 용역보고회를 개최하고, 효율적인 재정집단 및 성과를 거두기 위한 본격적인 연구활동에 매진했다.

재정정책연구회 용역보고회는 한상욱 재정정책연구회 대표의원을 비롯해 김수연 신동해, 오인선 운영속임형택 의원과 연구수행기관인 나라살터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진으로부터 용역과업 수행내용을 듣고 연구과제에 대한 질의응답 및 의견수렴의 시간을 가졌다.

익산시의회는 지속적인 전문 의정 실현을 위해 연구단체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재정운영에 대한 전문적 분석을 통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결산 및 예산안 심사,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시의회의 전문 역량을 강화하고, 집행부의 재정 건전성을 도모하는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한상욱 대표의원은 "익산시가 건전 재정 및 재정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연구용역을 통해 끊임없이 공부하는 의회, 전문성을 갖춘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지역 소식통

군산대 2021 대표자선거 총학생회장에 박형준씨

군산대학교 2021 학년도 학생자치기구 대표자 선거 결과 총학생회장에 박형준씨가 선출됐다.

지난 20일 진행된 선거 결과 총학생회장으로 역사철학부 철학전공 박형준씨가, 총학생회 부회장으로 당선자와 함께 출마한 기계융합시스템공학부 기계공학전공 김준씨가 선출되었다. 총학생회장 선거에는 6,512명의 유권자 중 3,870(투표율 59.43%)명의 학생이 참여했고, 당선자는 1,984표(득표율:51.27%)를 득표했다.

이 외 ▲총동아리연합회 회장: 최석진(토목공학과 3학년), 총동아리연합회 부회장: 조서연(생물학과 2학년) ▲예체대 학생회장: 이윤희(미술학과 3학년) ▲사회과학대학 학생회장: 최연규(사회복지학과 2학년) ▲자연과학대학 학생회장: 윤금채(수학과 3학년) ▲공과대학 학생회장: 김성명(컴퓨터정보통신공학과 3학년) ▲해양과학대학 학생회장: 이인재(식품생명과학부 식품영양학전공 3학년)씨가 당선됐다.

/군산=남현봉 기자

'익산다이어움' 이용 확대

익산시가 지역화폐 '익산다이어움'의 오프라인 시스템을 개발하며 서비스 확대에 나섰다.

시는 23일 일반 휴대폰 사용자까지 익산다이어움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오프라인 서비스를 전격 개시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일반 휴대폰 사용자도 다이어움 이용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운영대행사(주) KT, 농협이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으며(주) KT에서 운영하는 지역화폐 지자체 가운데 전국 최초로 오프라인 시스템을 개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본인 명의 일반 휴대폰 소지자도 지역농협은행 또는 농·축산영업점(48개 지점)을 방문하면 오프라인으로 익산다이어움 카드 회원가입과 충전할 수 있다.

오프라인 일반폰 이용자는 카드를 사용한 때마다 결제 내역과 충전 잔액을 즉시 문자 알림 서비스로 확인할 수 있다.

/익산=장양원 기자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전주매일 금연캠페인